



## “부자되세요”

세상이 실감나게 달라졌다. 생활여건이나 인심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놀라울 정도이다.

겨울이 흐지부지(?) 지나가고 이제 3월이 되었으니 어느덧 봄의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겨울은 추운 줄 모르고 지냈는데 하기가 1백 년만에 맞는 따뜻한 겨울이라니 군말이 필요 없을 듯하다. 30년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겨울기온은 영하20도를 자주 밑돌며 그야말로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곤 했는데 요즘은 수은주가 영하10도 근처만 내려가도 혹한으로 표현되곤 한다.

기상관련기관의 장기예보를 보면 50년후에는 서울 기온이 현재의 서귀포수준이 될 것이고 1백년후의 한반도는 아열대기후 지대로 분류될 것이라고 하니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지구촌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곳곳에서 가뭄, 홍수, 지진, 태풍으로 얼룩지고 있으며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으면서 바다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하니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변화무쌍한 가운데 모든 길이 오직 돈을 찾아 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아래 너도나도 부를 축적하기 위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마키아벨리즘이 살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엘빈 토를러는 최신 저서인 「부의 미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태의 부는 보편적으로 선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향해 달리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시대에 진정한 부자로 자리매김하려면 금융자산외에 도덕적 성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신을 지녀야만 한다.

건강, 사랑과 강한 유대감으로 결합된 가족,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같은 것이 그렇다. 경제학자들의 계산에는 쉽게 포함되지 않겠지만 이런 항목이 부라는 데에 이견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상적으로 부란 용어는 협의로 해석되어 금융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와 돈은 동의어가 아니다. 잘못된 인식이 만연되어 있기는 하지만 돈은 여러 가지 부의 증거 혹은 상징적인 표현 중 하나에 불과하다. 때때로 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흔히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살다보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경우도 겪게 되곤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향해 달리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시대에 진정한 부자로 자리매김하려면 금융자산외에 도덕적 성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신을 지녀야만 한다.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인쇄인들은 여기에 문화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도 함께 갖추어야 진정한 부자라고 존경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인쇄인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오세익 · 편집주간